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WSJ: 11월 미 도매 물가 예상보다 강세…0.4% 증가
- Bloomberg: 미 실업수당 청구 건수 두 달 만에 최고치
- WSJ: 트럼프는 인플레를 해소할 수 있을까?
- WSJ: 내년에 연준의 금리 인하 낙관은 금물
- Bloomberg: 11월 연방 부채 증가…보건, 국방 지출 커

[미국 금융]
- WSJ: 바이든 행정부, 은행 초과 인출 수수료 단속 강화

[트럼프 행정부]
- Bloomberg: 트럼프의 전기차 세액 공제 폐지, 공화당 지지주에 타격

[오일]
- WSJ: IEA “2025년 석유 수요 전망 상향…수요 성장세는 둔화”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구글의 양자 컴퓨터 돌파구…. 성과는 시간 걸릴 듯
- WSJ: 마이크로소프트, 크루즈 로보택시에 8억 달러 비용 발생
- FinanceYahoo: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 분할 계획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WSJ: U.S. Producer Prices Rise 0.4% in November, Well Above Expectations
11월 미 도매 물가 예상보다 강세…0.4% 증가

- 11월 미 도매 물가가 전월보다 더 큰 0.4% 상승해 최근 인플레 압력 강세 신호를 보이고 있다.
- 이는 기업들이 상품과 서비스로 받는 비용을 측정하는 물가인데 월스트릿의 경제학자 전망치는 0.2%였다.
- 연방 노동국에 따르면 상품 가격이 0.7% 크게 뛰어 상승세를 주도했으며 서비스는 0.2% 상승했다.
- 작년과 비교해서는 0.7% 상승해 지난 2023년 2월 이래 연율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핵심 도매 물가지수는 예상대로 0.2% 상승했다.

WSJ 기사

Bloomberg: US Jobless Claims Rise to Two-Month High After Thanksgiving
미 실업수당 청구 건수 두 달 만에 최고치

- 지난주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두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오늘 목요일 발표된 노동부 데이터에 따르면 12월 7일로 끝나는 주에 초기 청구 건수는 1만7천 건 증가한 24만2천 건을 기록했다.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간값 22만 건을 예상했었다.
- 추수감사절 연휴가 포함된 지난 주 실업수당 수령자 수를 나타내는 지속 청구 건수는 189만 건으로 증가했다. 반복 신청은 두 달 동안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 이는 실직자들이 일자리를 다시 찾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주 발표된 11월 일자리 보고서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실직한 근로자 수와 전체 실업률이 4.2%로 증가했다.

Bloomberg 기사

WSJ: Inflation Is Stuck. Can Trump Unstick It?
트럼프는 인플레를 해소할 수 있을까?

- 최근에 인플레가 점차 둔화되는 신호를 보이고 있지만, 11월에 연율로 2.7% 상승한 상황에서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 트럼프가 공언한 관세 인상과 이민자 제한 조치는 향후에 인플레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생산성 향상과 같은 다른 정책들은 인플레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예컨대 자동차 보험료 비용 상승이 줄어들 수 있고 특히 생산성 증가율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팬데믹에 따른 업무 재배치와 관련이 있다. 생산성이 향상되면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기에 인플레가 개선될 수 있다.
- 현재 소비자들은 물가 상승을 예상하고 있고 소매업체들은 관세 시행 이전에 홀리데이 시즌 구매를 서두르고 있다.

WSJ 기사

WSJ: Investors Shouldn’t Count on Much Help From the Fed Next Year
내년에 연준의 금리 인하 낙관은 금물

- 최근 인플레가 예상만큼 둔화되고 있지 않다. 식품과 에너지 비용을 제외한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는 작년에 비해 3.3% 상승했다.
- 이 같은 물가 압박은 지난 수개월 동안 계속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 인플레는 작년에 비해 4.6% 상승해 우려되고 있다.

- 내년 말까지 금리가 두세차례 인하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너무 낙관적인 전망일 수 있다.
- 일자리와 경제 모멘텀을 여전히 강하다. 경제 성장률이 3분기에 2.8%로 견실하고 물가는 3%대로 연준 목표보다 높은 상황이다. 여기다 새 행정부의 감세, 이민자 제한, 관세 인상은 인플레이션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WSJ 기사

Bloomberg: US Deficit Widens in November on Higher Health, Defense Spending
11월 연방 부채 증가…보건, 국방 지출 커

- 연방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올해 10월과 11월 두 달간 연방 부채가 더 벌어졌다. 주로 보건, 국방, 소셜 시큐리티 지출 증가 탓이다.
- 11월과 12월 적자는 6천2백40억불이라고 연방 재무부는 수요일 밝혔다. 캘린더 날짜 차이를 감안하면 전년도에 비해 19% 상승한 것이다.
- 지출 증가 외에도 일부 세수 감세도 부채 증가에 한 몫 했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WSJ: Biden Administration Cracks Down on Bank Overdraft Fees
바이든 행정부, 은행 초과 인출 수수료 단속 강화

- 현재 고객이 은행 체킹 어카운트로부터 잔액을 넘은 금액을 인출할 때 은행이 부과하는 수수료는 제한이 없다.
- 바이든 행정부는 강력한 방해 로비에도 불구하고 고객에 대한 과도한 초과 인출 수수료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 연방 소비자재정보호국이 오늘 발표한 은행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다음 3가지다.
- 1) 정액 초과 수수료 5% 2) 비용과 손실을 충당하는 만큼의 수수료 상한선 3) 수수료를 부과하되 다른 융자와 마찬가지 초과 인출 대출 조건을 정하기 등이다.
- 이 룰이 번복되지 않거나 바뀌지 않으면 내년 10월에 시행된다.

WSJ 기사

[트럼프 행정부]

Bloomberg: Trump's Push to Eliminate EV Tax Credits Hits GOP Lawmakers' Home States
트럼프의 전기차 세액 공제 폐지, 공화당 지지주에 타격

- 트럼프 당선인의 전기차 세액 공제 폐지 정책 때문에 전기차 관련 수십억 달러 투자와 수천 개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 그런데, 이들 중 상당수가 공화당을 지지하는 지역에 있어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트럼프가 인플레이션법(IRA)에 따른 7천5백 달러의 전기차 보조금을 없애기 위해선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미 상·하원의 다수당이 된 공화당 의원들 입장에선 트럼프와 지역 유권자들의 이익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 자동차 업계는 연비 기준과 같은 규제는 반대하지만, IRA의 세액 공제와 같은 전기차 투자는 유지되길 바란다. 무공해 운송 협회(Zero Emission Transportation Association) 전무이사이자 전 미국 부통령 Al Gore의 아들인 Albert Gore는 차기 트럼프 정부도 전기차를 어느 정도 지원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오일]

WSJ: IEA Lifts 2025 Oil-Demand Forecast But Expects Growth to Remain Subdued
IEA "2025년 석유 수요 전망 상향…수요 성장세는 둔화"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중국 경기 부양책의 영향으로 내년 석유 수요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수요 성장세는 여전히 완만할 것으로 예상했다.
- IEA는 내년 전 세계 수요가 하루 99만 배럴에서 110만 배럴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하루 200만 배럴 이상 증가한 것에 비해 낮은 수치다. 올해 전 세계 총 수요는 하루 평균 1억2천2백80만 배럴, 내년은 1억3천90만 배럴로 예상된다.
- IEA는 내년에 하루 95만 배럴의 공급 과잉을 예상하고 있다. OPEC+가 3월부터 증산을 시작하면 공급 과잉은 하루 140만 배럴로 늘어난다.
- 중국의 수요 약세와 공급 과잉 전망은 유가를 압박하고 있다. 브렌트유는 현재 배럴당 73달러, 미국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는 배럴당 7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Google's Quantum Boost Doesn't Really Compute
구글의 양자 컴퓨터 돌파구…. 성과는 시간 걸릴 듯

- 구글의 과학 프로젝트 중 하나가 큰 성과를 거뒀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양자 컴퓨터를 위한 자체 개발 칩 윌로우(Willow)를 발표했었다.
- 양자 컴퓨터는 일반 컴퓨터의 이진법보다 더 복잡한 큐비트(qubit)를 사용해 훨씬 더 복잡한 계산이 가능하다. 큐비트는 기존 0과 1로만 이루어진 이진법에 양자 얽힘과 같은 특성을 활용해 0과 1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가 추가된 것이다.(0, 1, 0-1)
- 아직 양자 컴퓨터 상용화는 한참 멀었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이번 소식이 구글의 상당한 기술력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제 구글은 이 기술력이 생산형 AI를 이길 수 있느냐가 문제이다.
- Evercore ISI는 "지난 6개월 동안 챗지피티가 주요 검색 엔진으로 자리 잡았다. 구글은 쇼핑과 여행 같은 상업적 검색에선 시장 점유율을 유지했다."라고 말했다.

WSJ 기사

WSJ: Microsoft to Incur $800 Million Charge Tied to Cruise Robotaxi
마이크로소프트, 크루즈 로보택시에 8억 달러 비용 발생

- 마이크로소프트가 GM이 크루즈 로보택시 프로그램을 폐기하면서 8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21년 크루즈에 2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었다.
- GM은 10년의 시간과 100억 달러를 들여 크루즈를 개발했지만,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경쟁이 심화된다는 이유로 현재 개발을 포기했다. GM은 자율주행차 전략을 변경해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우선 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WSJ 기사

FinanceYahoo: Warner Bros Discovery plans two-way split aiming for potential cable deal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 분할 계획

-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가 오늘 목요일, 케이블 TV 사업을 스트리밍과 스튜디오 운영으로 분할하기로 결정했다. 케이블 TV 사용자 감소가 점점 빨라졌기 때문이다.
- 미디어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스트리밍으로 대규모 전환을 이루면서 전통적인 케이블 TV 사업이 둔화되자 새로운 옵션을 찾고 있다.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는 TNT, Animal Planet, CNN과 같은 방송을 Global Linear Network로 통합할 예정이다.

- 또한 스트리밍 플랫폼인 Max와 디스커버리+는 워너 브라다서 픽처스와 함께 뉴 라인 시네마로 통합될 예정이다.

FinanceYahoo 기사

[보고서]

기술주 랠리에 美 나스닥 사상 첫 20,000선 돌파 마감

나스닥, 금리인하 기대에 1.8%↑…올해 들어 33% 올라
예상 부합 물가 지표에 시장 안도…알파벳, 양자컴퓨터 호재에 5%대↑

11 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에서 나스닥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20,000선을 넘어섰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347.65포인트 (1.77%) 오른 20,034.89 에 마감했다.

나스닥 지수가 20,000선을 넘어선 것은 1971년 지수 출범 이후 처음이다. 나스닥 지수 상승률은 올해 들어 이날까지 33%에 달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